

Prologue

저는 책을 골고루 읽고 있습니다. 감사한 분들께 책을 읽는 법을 배웠고 지금은 스스로 읽고 있습니다. 책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습니다’ 체로 써어 있는 쉬운 책, 영한 번역이 잘 되어있는 책, 고어 체로 기록되어 있는 책도 있습니다. 책을 읽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 책들도 찾아서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찾아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책을 읽고 삶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꿈에서 나온 듯한 생생한 환상을 우연히 그려보았는데 저의 그림이 누군가 그려 놓은 유명한 책의 삽화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그림은 책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저도 그 책을 한 번은 읽었지만 내용이 기억에 잘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의 그림들을 모아 보니 한 폭의 큰 그림이 나왔고 퍼즐 조각처럼 제 그림과 책의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가 맞아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고요한 새벽이었는데 따뜻한 온기가 저를 둘러싸는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어려워하던 책을 이렇게 이해시켜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르쳐 달라고 꾸준히 원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알려주신다고 밝히고 싶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시절이 춘추전국시대여서 많은 지식인들과 함께 대화하며 살고 싶습니다.

JUNE 2025
LETTERS INNOCENT ARCHIVE